

다른 운명으로 태어난 두 소녀의 가슴 아픈 우정

‘동갑내기 절친’ 김향기·김새론 주연 영화 ‘눈길’ 3월 1일 개봉... 일제 강점기 슬픈 역사 다뤄

일제 강점기 서로 다른 운명으로 태어났지만 같은 비극을 살아야 했던 두 소녀의 가슴 시린 우정은 어떻게 펼쳐질까. 동갑내기 절친 아역배우로 주목받고 있는 김향기와 김새론의 영화 ‘눈길’이 오는 3월 1일 개봉한다.

24일 공개된 촬영 현장 스틸은 서로의 옷매무새를 만져주며 친분을 과시하는 김향기와 김새론의 모습이 눈에 띈다. 색이 바랜 낡은 한복을 입은 김향기와 세련된 빨간 코트를 입은 김새론의 대조되는 모습은 다른 운명으로 태어난 두 소녀의 가슴 아픈 우정을 더욱 애뜻하게 보여준다.

하얗게 눈이 내린 강변에서도 추위를 잊은 듯 손을 꼭 붙잡은 채 서로를 챙기는 동갑내기 절친 김향기와 김새론의 모습은 실제 극 중 캐릭터인 ‘종분’과 ‘영애’를 떠올리게 만든다.

“난 한번도 혼자 생각해본 적 없다. 네가 살아야 내도 산다.”

1944년 일제강점기 말 같은 마을에서 태어났지만 전혀 다른 운명을 타고난 두 소녀가 있다.

가난하지만 씩씩한 ‘종분’과 부자집 막내에 공부까지 잘하는 ‘영애’. 퍽퍽하고 예쁜 영애를 동경하던 ‘종분’은 일본으로 떠나게 된 ‘영애’를 부러워하며 어머니에게 자신도 일본에 보내달라고 떼를 쓴다.

어느 날, 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 남동생과 단 둘이 집을 지키던 ‘종분’은 느닷없이 집으로 들어닥친 일본군들의 손에 이끌려 낯선 열차에 몸을 싣게 된다. 영문도 모른 채 끌려온 ‘종분’은 자신 또래 아이들이 가득한 열차 안에서 두려움에 떨고, 그때 마침 일본으로 유학간 줄 알았던 ‘영애’가 열차 칸 안으로 던져진다.

이제는 같은 운명이 되어버린 두 소녀 앞에는 지옥 같은 전쟁이 펼쳐지고, 반드시 집에 돌아갈 거라 다짐하는 ‘종분’을 비웃듯 ‘영애’는 끔찍한 현실을 끝내기 위해 위험한 결심을 한다.

영화를 먼저 본 국회사원들은 “우리 민족의 슬프고 아픈 역사를 좋은 영화로 만들어준 감독님께 감사드립니다(더불어민주당 조승래)라고 호평하며 추천했다.

종분역의 김향기는 “눈길은 꼭 봐야 하고 가슴 속에 깊이 새겨야 할 영화다 영화를 통해 역사적인 진실을 깨닫고 영화관을



을 나가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했고 김새론은 “슬픈 역사를 다루었지만 담담하고 따뜻하며 몽클한 영화다 앞으로 더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응원을 부탁했다.

/뉴스

‘아름다운 SF 영화 ‘컨택트’ OST 발매

아름다운 SF라는 평을 받는 영화 ‘컨택트’ OST가 유쾌비설 뮤직을 통해 지난 24일 발매됐다.

영화 ‘시카리오: 암살자의 도시’(2015), ‘프리즈너스’(2013) 등의 작품으로 극찬을 받은 드니 빌뇌브 감독이 연출하고 에이미 아담스, 제레미 레너가 주연했다.

오는 26일(현지시간) 열리는 제89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8개 부문 후보에 오르는 등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 시상식에서는 음악상 후보에 오르지 못했으나 지난 제74회 골든 글로브 시상식에서는 음악상에 노미네이트됐다. 영화 속 신비로운 우주의 분위기를 담은 선율이 인상적이다.

OST는 ‘시카리오: 암살자의 도시’와 ‘사랑에 대한 모든 것’의 작곡가 요한 요한손이 참여했다.

요한손이 빌뇌브 감독과 호흡을 맞춘 것은 ‘시카리오: 암살자의 도시’와 ‘프리즈너스’에 이어 세 번째다.

미니멀한 호흡이 인상적인 요한손은 앞서 ‘사랑에 대한 모든 것’으로 제 87회 아카데미 시상식 음악상에 노미네이트됐다.

그의 앨범 ‘오르페(Orphe)’는 롤링스톤즈 선정 ‘2016년 베스트 아방트(Avant) 앨범 2’에 선정되기도 했다.

/뉴스



트와이스, 데뷔 1년8개월 만에 일본진출

6월28일 데뷔 베스트 앨범 ‘해시태그 트와이스’ 발매

대세그룹 ‘트와이스’가 데뷔 1년8개월 만에 일본에 진출한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트와이스는 오는 6월28일 데뷔 베스트 앨범 ‘해시태그 트와이스(#TWICE)’를 발매한다.

데뷔곡 ‘우아하게’를 비롯해 ‘치어 업 IT’ 등 대표곡의 한국어, 일본어 버전 등 총 10곡이 수록된다.

JYP는 이와 함께 지난 24일 0시 트와이스의 일본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현지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같은 날 일본의 유명 아침 정보프로그램인 Uha!4 ‘ZIP 굿모닝’ 등 5개 프로그램에서 트와이스의 데뷔 소식을 대대적으로 다뤘다.

앞서 트와이스는 지난 23일 ‘우아하게’ ‘치어 업 IT’ 티치다운이 담긴 디지털 앨범 ‘왓츠 트와이스’를 미리 발매하고 분위기 다지기에 나섰다.

지난 8일부터 대대적인 프로모션은 이미 진행됐다.

도쿄의 대형 쇼핑센터 ‘시부야 109’ 외벽, 스크린을 교차로, 하라주쿠역 등

변화기에 트와이스의 사진이 내걸렸다. 같은 날 개설된 일본 오피셜 트위터는 오픈 하루 만에 6만 팔로워를 돌파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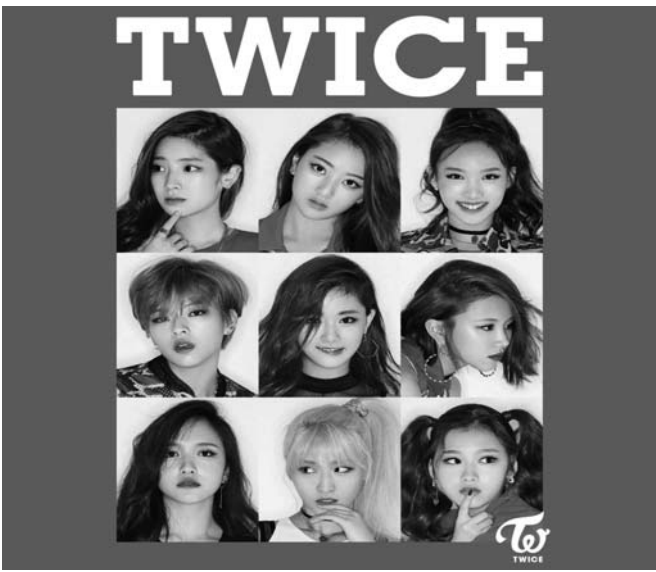
지난해 10월 한국에서 발매한 미니앨범 ‘트와이스코스터 : 레인’은 같은해 11월 오리온 해외 앨범 주간차트 1위에 오르는 등 현지 팬들의 관심을 일찌감치 받았다.

JYP는 “특히 타이틀곡인 ‘IT’의 포인트 안무는 일본까지 퍼졌고, 현지 연예인들이 이 춤을 따라하면서 ‘IT’ 신드롬이 일어났다”고 소개했다.

한편 트와이스는 국내에서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20일 발매한 스페셜 앨범 ‘트와이스코스터 : 레인’은 전주동량만 31만장을 돌파했다. 전작 ‘트와이스코스터 : 레인’ 대비 2배에 달하는 선주문량이다. ‘트와이스코스터 : 레인’ 전체 판매량이 약 37만장(가온차트 기준)임을 감안할 때, 엄청난 인기 상승세다.

이 앨범의 타이틀곡 ‘낙(KNOCK



KNOCK)’ 뮤직비디오는 공개 24시간 만에 유튜브 조회수 1000만 건을 돌파한 데 이어 75시간 만인 23일 오전 3시 2000만 뷰를 넘어선 바 있다.

전곡 ‘IT’ 뮤직비디오가 공개 114시간 만에 2000만 뷰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무려 39시간이나 단축한 셈이다.

‘IT’ 뮤직비디오는 71일 만에 유튜브 조회수 1억 건을 넘어선 바 있다.

/뉴스



에릭·나혜미, 가수·배우 띠동갑 커플 탄생

연예계에 또 띠동갑 커플이 탄생했다. 한류그룹 ‘신화’ 멤버 에릭(38·문정혁)과 배우 나혜미(26)다.

에릭의 소속사 EX1 엔터테인먼트는 “서로의 활동을 응원하며 좋은 선후배 관계를 이어오던 두 사람이 최근 연인 사이로 발전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루조금 두 사람의 만남에 좋은 시선으로 봐주시고 응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

에릭과 나혜미는 지난 2014년부터 꾸준히 열애설에 휩싸였다. 하지만 양 측은 그때마다 이를 부정해왔다.

연예계와 신화 팬들과 사이에서는 이들이 연인 사이였다는 소문이 돌았다.

1998년 신화 1집 앨범 ‘해결사’로 데뷔한 에릭은 멤버들과 함께 ‘T.O.P’ ‘브랜드 뉴’ ‘디스 러브’ 등의 히트곡을 내며 한류스타로 떠올랐다. 드라마 ‘불새’ ‘게세라세라’ ‘신입사원’ ‘또 오해영’ 등에서 주연을 맡아 배우로도 활동했다.

170cm의 늘씬한 외모를 자랑하는 모델 출신 나혜미는 2001년 영화 ‘수취인불명’으로 데뷔했다.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 드라마 ‘오버 더 레인보우’ 등에 출연했다.

/뉴스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